



## 슈발리에, 그의 시대에..

**슈발리에 신부님의 삶**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살아남기 위해 열심히 일을 했던 슈발리에 신부님은 한 인간이자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여정 안에서 항상 자신이 처한 현실에 발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시대의 가혹한 현실 안에 육화하여 그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 시절은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프랑스 혁명의 이데올로기가 강요되고 서구에서는 산업화 시대가 열리고 있었으며, 모든 것이 변화하면서 많은 그리스도교적 가치들이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모두 부정적으로 표현하며 "우리 시대의 악"이라고 불렀으며, 이를 이기심과 무관심이라는 두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줄은 사회경제적 분야뿐만 아니라 신앙 분야에서도 이 두 가지 내적 태도를 모두 인식했으며, 빈곤, 소외, 노예제, 세속주의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그는 사랑이신 하느님께서 인간의 고통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마음으로, 동시에 하느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자신이 속한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해답과 해결책을 보았습니다. 형제자매들의 고통에 의해 찢기신 마음의 이미지로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은 인간 해방을 위해 일하라는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너희가 형제자매에게 하는 것이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슈발리에 신부님의 말씀** "피조물을 향해 내려오는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모든 피조물의 사랑이 만나는 곳이 바로 이 성심이 아니겠습니까?"(『예수 성심』, 88쪽) "그분의 찢리신 성심은 하느님 사랑의 마지막 말씀이며,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모든 것, 우리가 이를 보고 사랑하기를 원하셨기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예수 성심』, 84쪽). "그분의 생명의 샘을 마시기 위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당신 마음을 열어 놓으신 주님과 일치되어....". " 그리고 창에 찢리신 그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 없이는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되셔야 할 모든 것이 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온전하게 보완하는 신비로운 존재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성심』, 86쪽 - 참조, 1,23)

## 오늘날을 위한 슈발리에..

새 천년, 시대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대다수의 인류를 이롭게 하는 것에 거슬러 소수의 이익만을 위해 새로운 방식으로 이기심과 무관심을 키우는 '우리 시대의 악'이 많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난 하느님의 사랑, 그 마음을 계속 거스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슈발리에, MSC

선교 열정을 마음에 품은 이

1824-2024

## 오늘 날을 위한 슈발리에 ...

줄 슈발리에처럼, 우리는 오직 사랑, 육화되어 투신하는 사랑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요컨대, 성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처럼 사랑이 "나보다 너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라면, 사랑은 이기심과 무관심, 그리고 그로 인해 대다수 인류가 겪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 이달의 기도

주님,

당신께서는 줄 슈발리에 신부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시대의 악에 깊은 관심을 가지도록 영감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운 사랑이 드러나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묵상할 때, 우리도 그분 안에서 세상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랑에 감동되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세상 곳곳에서 그분의 사랑의 증인이 되게 하소서.  
아멘.

( 참조: MSC 회헌, no. 3. )

